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의**

**주교님들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정교 양떼 전원을 향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세르기의 부활절 서신**

**주교님들과 존엄하신 신부님들,**

**정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신성하고, 기쁘며, 구원을 주고, 모든 이에게 불멸의 길을 열어주는 파스카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난의 슬픔과 고뇌의 폭풍을 몰아낸 신앙의 봄이 와서”(부활절 제2 주간 목요일 예배 본문) 부활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니, 이는 믿는 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삶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복락과 비교하면, 그분과 함께 하는 기쁨과 비교하면 지상의 비애와 두려움, 문제, 시험들은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데, 더군다나 모든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성부의 품이 그에게 언제나 열려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일 것입니다! 십자가에게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딘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참여자로 삼으시고, “온갖 악한 존재와 정념이 피해 달아나는 불과 같은”(성 시메온 메타프라스티스 수도자의 영성체 후기도문 중) 성령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얻었고, 이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우리 삶에서 언제나 이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신자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밝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여 그분께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여러분 모두께 영육간 힘과 평화, 기쁨, 영적 용기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내려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찬양되도록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강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 세르기**